

AI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8

© 2024 알 푸어(AI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전도서의 주요 모티브를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접근 방식이 전도서에 적합한 접근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서는 책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등장하는 반복적인 주제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매우 순환적입니다. 책 전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기본 단어 및 문구와 함께.

그 메시지는 이러한 문구와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적인 접근은 적절하지만, 텍스트 자체를 선형적으로 직접 다루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쪽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에서는 전도서나 코헬렛의 7장부터 12장까지의 연속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노출시켰던 용어를 자주 사용하여 이 연속 설명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코헬렛에 매우 독특하고 신학과 코헬렛의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기본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NIV 번역본을 읽을 예정이지만, 다시 한 번 이 키워드 중 일부를 삽입하고 이 연속 설명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연속 해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교사의 말씀이라 그리고 다시, 선생님은 우리의 Kohelet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전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Kohelet)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이 핵심 인물인 코헬렛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실제로 히브리어 코헬렛의 그리스어 번역인 칠십인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약 신학, 교회론, 교회 교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사람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교회, 교회, 모임에 대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회나 모임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NIV 교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설교자로 번역한 코헬렛이라는 용어는 모이다, 모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카할의 분사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질문은 코헬렛이 사람들을 모으거나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모으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장의 에필로그에서도 그것이 암시되지만, 스승은 지혜를 모으고 쌓은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는 둘 다입니다. 그는 지혜를 모으는 자이고 코헬렛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코헬렛이 1인칭과 3인칭으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며, 이는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데 문자적으로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자이자 교사인 코헬렛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소개된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비록 솔로몬이 책에서 이름으로 언급된 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코헬렛과 솔로몬의 정체성을 봅니다.

그의 서문, hevel of hevels, NIV는 무의미하게 읽히고 KJV는 허영심, 일부 번역은 무익하다고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Hevel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본문 전체를 읽을 때 여기에서 그것을 볼 때 정기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Hevel of hevels 는 교사인 Kohelet, 완전히 Hevel, 모든 것이 Hevel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최상급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는 책의 맨 처음부터 바로 선언과 판단을 하여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무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경박함은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적으로나 관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 됩니다.

비천함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다루고 그것이 펼쳐지는 탐구와 여행에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단순히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의문적인 질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3절입니다.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여기서 이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 트론(yitron)입니다. 나는 이 말이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이해한다. 이제 나는 그것이 약간 의미론적 확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Kohelet은 우리가 어휘집이나 사전에서 반드시 찾을 수 없는 단어로 작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yitron이라는 단어는 좀 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여기 NIV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잉여, 이익 또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뒤에 남겨진 것이므로 상품 거래에서 이익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맥락입니다. 하지만 코헬렛은 그런 의미, 그런 맥락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바로 Hevelness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yitron이라는 단어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무언가에 대해 이런 종류의 암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비천함을 넘어 실제로 생명의 타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의 길을 확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증함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현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패가 최종 게임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구속이 있고, 물론 인류, 구속받은 자들 자신의 구속도 있는데, 이는 로마서 8장과 다른 곳, 특히 신약성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헬렛은 반드시 완전한 계시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현명한 성인처럼 해 아래서의 삶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지 타락한 관점에서가 아닙니다. 확실히 우상 숭배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종류의 징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관점이고, 지혜는 필멸의 존재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지혜 자체도 제한적입니다.

코헬렛은 신이 아니며, 그는 사물을 하나님처럼 보지 않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가 보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실제로 괴로움을 가중시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타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 탐구는 사실 꽤 흥미롭습니다.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이 의역한 메시지는 그가 전도서를 의역하면서 코헬렛을 탐구자로 언급하고 실제로 헤벨 용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연기. 그래서 그의 소개는 연기, 연기, 모든 것은 연기일 것이라고 질문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탐구, 이 여행을 봅니다. 나는 그것을 지혜의 여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인간입니다. 상태. 그렇다면 인간의 노동, 아말로부터 어떤 이트림, 어떤 이득,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용어 아말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며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과 수고를 의미하지만 여기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헤벨 경험에서 수행되거나 수행되는 노력의 축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아말(amal), 일, 수고, 일종의 노력이 무덤 너머까지 지속되는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Kohelet이 당신이 조금 모든 많이 모든,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고하든, 아니면 그냥 인생을 순항하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무덤에.

어쨌든, 이 시작 질문, 코헬렛이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설정하거나 우리 앞에 여정을 설정하는 이 의문 질문 너머에 우리는 소개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에는 삶의 순환적 본질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관찰적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순환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자전에서 다양한 계절 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환적 성격이 어떤

종류의 최종 게임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최종 단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경험에 대한 해결책, 코헬렛이 찾고 있는 것 같고 그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열자마자 생명의 순환적 특성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타락한 생명 상태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임을 말해 준다는 사실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세상을 저주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의해 일종의 일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계시와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Kohelet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한 것 이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순환에 대한 현재의 경험은 우리가 Yitron 에 대한 결단 없이 경험하는 어떤 무거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

세대는 오고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느니라. 해는 뜨고 해는 지며 서둘러 뜬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향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언제나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그런 순환적 감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시냇물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그가 여기서 단지 자연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에서 먼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서 발견하는 것을 여기서 거의 대표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오지만, 그 탄생 역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에게만 넘겨줍니다. 그러나 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어떤 일에 연루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인간이 자신의 필멸의 나이를 넘어 연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유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현명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지루하고 지겹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충분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 중 일부가 나중에 4장과 5장에서 지혜의 렌즈를 통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코헬렛은 사람이 엄청난 부와 보물을 추구하고 축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현대 용어로 수백만 달러를 벌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억만장자도 무덤에 가야 한다. 그래서 보물을 위해 보물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코헬렛은 나중에 순전히 어리석은 짓으로 여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삶과 심지어 역사의 순환적 성격을 다시 한번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자연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전반에 걸쳐 자주 접하게 될 태양 아래라는 어법은 실제로 단순히 관점의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필사적이거나 수평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해 아래의 삶을 관찰하고 그것을 필멸의 존재로서 경험하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이것을 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는 코헬렛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휴대폰 등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의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코헬렛은 단순히 생명은 역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받은 필멸의 타락한 상태에서 어떤 종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옛날 남자들의. 그건 그렇고, 이것은 전도서에서 작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즉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에게서도 지속적인 유산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속할 수 없는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하는 순환적 노-이 트론 상황을 확립하는 시작 시가 나온 후, 코헬렛은 1인칭으로 말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여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Hebel 조건에 대한 모든 Yitron. 나 코헬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니라. 나는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지혜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양 아래로의 변주는 문학적 변주에 불과하다. 나는 이것이 여기서 태양 아래의 관점과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헬렛이 지혜의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찾고 탐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확언이 성경의 다음 부분, 즉 다음 구절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Yitron을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이 그에게 집착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헌신합니다. 그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매우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서 하려는 일에 매우 의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셨는가?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그 단어 부담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인욘(inyon)이며, 인욘은 전도서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발견됩니다. 사실, 우리는 Hebel, Yitron, Amal, 일 또는 노동과 같은 Inyon의 개념을 Kohelet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함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밭에서 노동하는 것과 같이 단지 등에 짊어지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찾아야 할 의무가 있거나 아마도 찾고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일종의 의미입니다. 지혜의 구현을 통해 실제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모두 삶의 무거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지만 자신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해결하고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에게는 실제로 줄의 끝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좌절감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다 헛된 것이요, 바람을 쫓는 헤벨이니라. 특히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헤벨의 동반 문구인 *ret ruach*는 바람을 쫓거나 붙잡는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헤벨은 말 그대로 안개 또는 증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Kohelet*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것은 때로는 쓸데 없거나 헛된 것이 됩니다. 따라서 KJV의 번역인 *Vanity of Vanities*에서는 종종 책에서 *Hebel*이라는 단어를 38번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 번역에 의한 허영심.

그래서 바람을 잡는다고 묘사된 것을 보면 정말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바람을 붙잡고 뒤로 당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꺼내거나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바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삶의 헤벨성과 삶의 신비는 파악할 수 없음을 인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헤벨의 딜레마를 해결함에 있어 지혜의 구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혜가 헤벨이 된다는 점은 오히려 아이러니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이 모든 성취와 모든 지혜 중 어느 것도 문제, 즉 헤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뒤틀린 것은 곧게 펴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은 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지만 코헬렛이 여기서 씨름하고 있는 딜레마를 설명하는 속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의도하셨거나 부족하게 만드신 것에 더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결하거나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누구보다 나의 지혜가 더 많아졌고 지혜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그것이 솔로몬이 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진술인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의 정체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 이전에 단 한 왕만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진술은 어색해 보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솔직하게 여기서는 자신이 가능한 한 현명했거나 그 어느 사람보다도 현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서 최상급 표현과 쌍곡선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탐구나 여행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경험했고, 물론 우리는 열왕기상 3-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 다음 나는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코헬렛이 자신이 수행한 탐구가 현명한 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의 렌즈를 통해 hevele 로 묘사되는 것들을 탐구 하고 heveleness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돌도 버리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한 어리석음과 광기가 어리석음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실제로는 지혜의 정반대인지 여부를 탐구할 것입니다. 지혜가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면 아마도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리석음과 광기는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궁극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어리석음과 광기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Kohelet은 궁극적으로 거절할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물에 걸려 넘어진다.

그는 성취할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즉, 전도서 전체에 걸쳐
어리석음이 긍정적인 의미로 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Kohelet 인물은 1장과 2장의 자서전 부분에서 "야, 내가 다 확인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모든 바위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중 어느 것도 인생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이며 심지어 광기와 어리석음에 시시덕거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지혜를 통해 광기와 어리석음을 탐구하면서도 지혜의 렌즈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임을 깨달았다.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으니라. 지식이 많을수록 슬픔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혜가 나쁘다거나 지혜가 반드시 당신을 위대한 비관주의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자신이 현명해질수록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즈음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지혜를 쌓을 때 우주와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 지혜를 통해 실제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게 추가적인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나중에 책에서도 그런 종류의 모티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전적 사고 방식을 이어 가면서 나는 마음 속으로 '이제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기꺼이 당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지혜를 통해 쾌락을 시험하고, 광기를 시험하고, 어리석음을 시험합니다.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쾌락, 광기, 어리석음, 이 모든 것 역시 현재의 경험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웃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사실 훗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속담을 지혜로 탐구해보면, 웃음과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가시덤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이고, 단순한 소음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무엇을 성취합니까? 나는 와인으로 나 자신을 응원하고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코헬렛은 이 여정에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서 사람이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태양 아래 어법에 대한 또 다른 변형입니다.

여기서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절에서 그가 경건이나 거룩함을 통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반면, 다른 곳에서는 타락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내가 여기, 해 아래나 하늘 아래, 기본적으로 동의어인 모든 것을 그들의 생애 며칠 동안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존재, 필멸의 존재의 일시적인 성격이 그들의 삶의 며칠 동안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나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나는 정원과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고대부터 고대 세계의 왕과 귀족들이 공원과 정원 등을 짓는 일에서 큰 즐거움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대함, 왕으로서의 위대함을 과시했습니다. 나는 물이 자라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저수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코헬레트는 도시에 물을 대는 수로를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남종과 여종을 사서 우리 집에 다른 종들을 낳았으니 그는 부자였습니다. 욥이 생각나네요. 욥기 서문에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양 떼와 소 떼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축적되면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또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소와 양 떼를 더 많이 소유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은금을 모았고, 왕과 지방의 보물도 모았습니다. 나는 남자와 여자 가수와 하렘도 얻었습니다. 꽤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렘이라는 단어를 읽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 생각하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생각하며, 예, 이것이 솔로몬이라면 하렘은 말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좀 흥미롭습니다. 하렘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고 사전과 어휘를 기억한다면 그것들은 하늘의 영감을 받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씨름하려고 합니다. 하렘이라는 단어 뒤에는 번역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실제로 이 보물 상자를 번역합니다. 즉, 일종의 부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반드시 코헬레트가 이 여성들을 모두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는 일종의 쾌락주의적인 쾌락 추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 본문이 이 모든 것의 집합을 묘사하고 있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즐거움과 어리석음과 광기를 추구하여 그 중 어떤 것이 지속적인 가치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렘이라는 개념에 대해 너무 많이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하렘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확실히 동방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나 고대 세계의 왕들은 하렘을 축적했을 것이므로 이것이 너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의 즐거움, 보물 상자, 부, 하렘 등이 그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지혜는 나와 함께 머물렀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소 흥미롭습니다. Kohelet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고 위대한 것 이상으로 지속적인 유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고유한 자격이 있습니다. 타락의 문제나 삶의 무거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얻고 성취할 수 있었던 위대한 것들을 축적하면서 나 자신을 조사하고 경험하면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부분만 아니라 지혜에서도 독보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기쁨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수고의 삯이로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하여 이루려고 노력한 모든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었더라.

태양 아래서 이트론도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과 11절은 1장과 3절과 짝을 이루거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장과 3절에서 코헬렛은 이렇게 묻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발견되는 이 트론 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으고 지혜, 광기, 어리석음, 쾌락, 막대한 부의 축적을 통해 탐구한 후 코헬렛은 이 안에는 이 트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합니다.

나는 생각을 돌려 1장과 7절을 다시 비교하면서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을 고려합니다. 왕의 후계자는 이미 행해진 일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순환적 본질에 관한 시 1장과 9절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Kohelet이 yitron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yitron을 전도서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tov, 무엇이 더 나은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도서에서 일종의 신학보다 나은 지혜 신학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장점을 탐구하면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속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나 나는 같은 운명이 두 사람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죽음의 필연성을 두드러진 모티브로 탐구했는데, 여기서는 책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죽음의 필연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지만, 문제는 지혜가 여전히 지속적인 이트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모든 것의 위대한 평준화자, 평등화자, 죽음에 의해 일종의 평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도 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고, 문학적 의미에서 이것을 반성 연설이라고 부르는데, 바보의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명해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에서는 이트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것도 헤벨 이다.

그건 그렇고, Hevel 아이디어는 종종 판단의 아우라를 취하므로 Kohelet이 내가 Hevelness를 관찰 하고 그것을 Hevel 이라고 선언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한 많은 기소와 함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hevel 이라고 선언됩니다 .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래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1장 11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옛 사람은 기억되지 아니하나 따르는 자들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반복합니다.

전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순환적인 반복의 성격이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래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둘 다 잊혀질 것이다.

바보처럼 현명한 사람도 죽어야 한다. 죽음의 불가피성. 그래서 코헬레트는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반성한 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이 글을 읽으면 '이건 정말 비관적이네요, 그렇죠?'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Kohelet의 주장은 단순히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런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현명한 현자인데, 그것이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것은 그를 좌절시킨다.

코헬레트는 딜레마를 관찰하면서 고뇌가 부족하지 않으며, 지혜가 불가능한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한 딜레마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싫어했고 나도 삶을 싫어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Kohelet은 단순히 "나는 죽음을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보는 것에 단순히 좌절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나에게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hevel 이고 모든 것이 hevel 입니다 .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확장되고 소비되는 노력은 바람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루아흐는 다시 바람을 쫓는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하려던 모든 일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맡겨야 함이라. 우리는 삶의 순환에 관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주제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Kohelet에 등장하는 누군가는 이 사람이 바보일 수도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지 지혜로운 사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해 아래서 내 수고와 기술을 쏟아 부은 모든 일을 다 관리할 것입니다. 이것도 hevel 입니다.

즉, 나는 수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노력이 그치지 않지만,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고 그것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태양 아래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보다 생명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큰 불행 이고 큰 불행이다. 그러므로 무덤 너머에는 어떤 수고도 성취도 없으며, 당신이 왔다 갔다 한 후에는 실제로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 그의 일, 그의 아말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밤에도 마음이 쉬지 않아 스트레스가 밤늦게까지 이어져 잠에 들기도 한다. 이것도 hevel 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고를 고려하여 코헬렛은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서 우리는 즐거운 인생 후련의 첫 번째 후련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일에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고 우리의 현명한 사람은 관찰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분 없이는 누가 먹거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즐거운 삶을 후련 전체에서 코헬렛이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은총, 즉 현명한 사람이 이 모든

애타는 노력과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이 모든 수고와 노동이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심지어 추론할 수 있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이거나 정기적인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도록 재물을 모으고 쌓아 두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도 바람을 쫓는 헤벨이겠죠? 루아흐. 그러므로 무덤 너머까지 확장되는 노동의 산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안과 수고와 슬픔 속에서도 코헬렛은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사고가 확장되어 책 전반에 걸쳐 더 자세히 설명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장은 매우 흥미로운 시, 시간에 따른 시로 시작됩니다.

시간은 전도서 전체에 걸쳐 작은 모티브가 됩니다. 우리는 3장에서 시간에 관해 다룬 문제가 8장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장은 제가 믿는 전도서의 앞부분이라고 믿는 진술로 시작됩니다. *inclusio*, 17절 3장으로 끝나는 괄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종종 다소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유연한 개념입니다. 세계. 그러므로 3장 시작 부분에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절부터 8절까지의 약간의 혼란스러운 배열과 병행 방식으로 이진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뿌리를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고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으면 파괴할 때가 있고, 치유할 때는 건설할 때와 병행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따라서 4절에서는 평행선 사이에 약간의 확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고 슬퍼하고 웃고 춤을 춰라. 돌을 흠어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돌을 흠뿌리고 돌을 모으는 문제는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고 성행위에 관한 일종의 관용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포용해야 할 때와 자제해야 할 때와 병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을 흠뿌리고 돌을 모으는 것이 단순히 고대 세계의 전쟁 등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복군이 와서 들판 곳곳에 돌을 뿌릴 수도 있고, 어쩌면 돌을 흠뿌리고 요새와 그런 종류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의 문제는 조약이나 일종의 평화 협정이 있을 수 있는 종류의 포용을 다루지 않는 한 포용과 삼가는 것이 그다지 합리적인 평행선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처럼 그것은 다소 모호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탐색과 유지, 버리기와 포기, 찢을 때가 있고 고칠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사이의 평행 배열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찢어지고 고치는 것은 침묵과 말하기와 평행을 이루는 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시를 다룬 이전 강의에서 시간 이 매우 유연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특정 기간을 특정 시점, 즉 특정 날짜, 어쩌면 하루 중 특정 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좀 더 실질적인 것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하기 좋은 때, 저것을 하기 좋은 때 등의 시간 개념이다. 나는 이전 강의에서 스키어에게 2~3피트의 눈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스키를 타기에 좋은 시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는 아름다운 저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이 파티오에서 요리를 하거나 외식을 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와 히브리어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시 전체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et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는 영어의 시간(time)이라는 단어처럼 매우 유연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관한 시의 문제는 여기서 코헬렛이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탐구했듯이, 하나님이 주제가 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책의 다른 곳에서 확실히 코헬렛의 생각의 특징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때, 태어날 시간, 죽을 시간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이 생명의 순환을 정하셨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에 대한 시는 우리가 1장에서 발견한 자연의 생명주기에 대한 시작 시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사물을 설계하시므로 여기서 시기적절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3장과 11절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고 적합하게 만드셨으며, 확실히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대 계획과 이 천국 세계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조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주체로 하여 시간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확실히 지혜는 삶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계율을 이행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시기는 삶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때를 알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야 할 적절한 시기인지 알 것입니다. 사실, 10장에 나오는 잠언 중 하나에서 코헬렛은 적절한 식사 시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간, 즉 적절한 et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주체로 하는 시기의 적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이밍이 주요 요소가 된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코미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코미디는 종종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오른쪽? 따라서 때로는 적절한 타이밍을 구현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물이 있어야 할 때의 적절함을 알 뿐만 아니라,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를 활동에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이러한 이진 쌍과 병렬 구조를 사용하여 제 시간에 맞춰 시를 통해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 전체에 걸쳐 시간이 묘사되는 통일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야 할 때나 일어날 때를 정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죽을 때와 같은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만, 울 때나 웃을 때와 같은 다른 때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웃거나 우는 시간을 반드시 지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은 주제로서의 인간에 대한 감각, 적절성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간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울음과 웃음의 의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울고 애통하기에 적합한 때와 웃는 것과 그러한 종류의 활동에 적합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맞춰 시를 읽어나가면서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감각을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 개념과 다른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코헬렛은 이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헤쳐나가듯이, 지혜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설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현명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더라도 궁극적인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고 결정을 내려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코헬렛이 시 전반에 걸쳐 인간을 주제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로서, 시대를 헤쳐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를 구현하는 자로서 인간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시를 통해 자주 사용되는 고유한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코헬렛이 많은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이를 매우 간결하고 간결한 구조로 포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시간에 맞춰 이 시에 대해 논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일꾼은 그의 모든 아말 에서 발견되는 Yitron 이 무엇을 얻습니까 ? 1장 3절에서 소개 질문으로 찾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거의 수사적 질문으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즉, 계속 검색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담인 인욘을 보았고, 우리는 그것을 1장 10절이나 13절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하신 부담인 인욘, 즉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덤 너머의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고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물 활동, 하나님의 만물 계획에는 시기적절함이 있고 때의 규칙성과 일관성이 있지만 사람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생각하게 하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티브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결코 올바른 발판을 마련할 수 없는 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영속적인 것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파악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12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인생을 즐기라는 후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러한 묵상 속에서 코헬렛은 다음 후렴으로 뛰어듭니다.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여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활동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이 부분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인간은 왜 신을 지배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인간이 자신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발견했지만, 의인이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예외를 조사하거나 관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썄요, 궁극적으로 매우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바벨탑 상황의 창세기 11장과 다시 연결하고 싶습니다. 인류가 바벨탑 건설을 통해 추구한 것은 신성을 달성하는 것, 신성을 파악하는 어떤 의미를 획득하는 것, 하나님 위에 하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한을 가하셔서 사람이 결코 그에게 한계를 두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실천한다고 해서 어떤 보장된 증권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어지는 잠언에 반영되어 있음을 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일은 이미 있었고 앞으로 있을 일은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은 과거를 고려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의 히브리어는 다소 모호합니다. NIV가 이것을 번역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활동을 고려하여 17절에 이어지는 일종의 심판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나는 태양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자리에는 사악함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는 곳에는 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하나님께서 사물의 시기를 적절하게 계획하신 세상에서 심지어 인생에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심판을 집행하실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고, 코헬렛은 여기서 일종의 사후 심판의 가능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언어는 제 생각에는 이 전체 부분을 함께 묶고 묶는 것처럼 보이는 1절의 3장에서 발견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흥미롭게도 3장과 17절에서 어떤 형태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12장의 13절과 14절에 있는 책 전체의 결론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곳의 언어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또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하심은 사람도 동물과 같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하였노라 인간의 운명은 동물의 운명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것과 같은 운명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코헬렛은 어떤 종류의 신학적 의미에서 소멸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직신학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태양 아래서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2장에서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둘 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죽음의 불가피성 측면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곳으로 갑니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흠으로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전도서 12장과 7절에서 코헬렛은 노화 과정에 대해 숙고한 후 인류가 자신의 창조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인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점에서 그는 단순히 먼지 에서 먼지로 변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처럼 일반 무덤에 가는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그에게 할당된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heleq*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았고 이 시점에서 인생을 즐기라는 자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즐거운 삶의 모티브와 즐거운 삶의 후렴과 그들의 고조되는 성격을 다루는 전체 강의에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이러한 즐거운 삶의 후렴에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운 삶을 자제하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삶을 즐기라는 후렴구가 삶의 무거움에 대한 코헬렛의 사색과 관찰의 맥락 내에서 설정되는 것 같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책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류와 지혜가 궁극적으로 파악하고 숙달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추악함과 문제들을 모두 봤으므로 그냥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삶에서 기쁨(*simcha*)을 찾을 수 있도록 헬레크의 은혜와 할당을 제공하신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쾌락주의적 쾌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아주 단순한 즐거움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큰 부분에서 관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져갈 수 없는 보물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사를 받고 현재 그 은사를 활용하니까? 그것은 지혜의 문제이고 코헬렛이 제시하는 질문은 현명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탐구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간에게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할당된 것이고, 그것이 그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그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생각은 사람이 무덤 너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 우리는 코헬렛의 관찰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러한 관찰에 기초한 그의 성찰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은 다시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삶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요소나 측면을 대표하는 것들 중 일부에 관해 아래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확실히 우리 모두가 친숙한 타락한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통으로. 고통은 흔한 경험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너무 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삶을 바라보는데, 분명히 그것은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시작되는 코헬렛의 말에서 그 반성적인 목소리를 발견합니다. 나는 또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학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코헬렛은 불공정이 만연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공정이 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특정 국가에서의 생활을 사람들이 뇌물을 주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어야 하는 일종의 삶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부패문화가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맥락에서든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고통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민이 된 사람들. 우리는 이들이 위로자가 전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합니다. 그는 내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압제자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힘없는 자와 강한 자를 관찰하고 힘없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흔히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이미 죽은 죽은 자가 더 행복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코헬렛이 여기서 반드시 생명의 신성함에 반대하는 신학적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고통은 살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헬렛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고린도후서 1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다른 맥락을 다루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태양 아래의 관점에서 코헬렛은 단순히 이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것에 대해 상당히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그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 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나으니라 어찌면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코헬렛은 단순히 인생이 고통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라면 전혀 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노동과 모든 성취가 이웃에 대한 인간의 시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위대한 것들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노력 뒤에 숨은 동기, 그 수고 뒤에 있는 동기, 탐욕이든 시기심이든 간에 코헬렛은 그 모든 것을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시기하는 것 역시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손을 모으고 자기를 망친다. 두 손에 쥐고 수고하며 바람을 쫓는 것보다 한 손에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제 현명한 사람인 코헬렛은 여기서 지혜의 잠언을 시작하는 데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헬렛은 위대한 물건과 보물을 모으는 데는 지속적인 이득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처럼 이웃에 대한 부러움이 어떤 사람들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물과 부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코헬레트는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을 그냥 포기하지는 말자고 합니다. 즉,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와 매우 일치하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Kohelet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헛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손을 접는 것은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모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게으름으로 자신을 망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사물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에 쥐고 수고하며 바람을 쫓는 것보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한 손에 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혜의 말씀. 또 나는 해 아래에서 무의미하거나 괴상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수고가 끝이 없더라. 그러나 그의 눈은 그의 모든 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부의 축적을 촉발하는 것은 단지 수고와 어리석음일 뿐인 시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기도 합니다.

그는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왜 나 자신에게서 즐거움을 빼앗기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부를 쌓기 위한 탐욕,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 역시 비참한 사업인 hevel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좋은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그의 친구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코헬렛은 그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남자가 자신의 노동에서 동료를 찾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생에서 더 큰 이점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속담적인 의미에서 지혜의 말일 뿐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그의 친구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독신이 어리석고 결혼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반드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천상세계의 삶은 함께 나누는 삶이고, 함께 나누는 천상세계의 삶이 더 유익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압도당하더라도 두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세 가닥으로 된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타락천국에는 수효(數敵)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코헬렛은 4장 13절부터 시작하여 일종의 예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보다 나은 모티프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늙었지만 어리석어서 경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리라.

청년은 감옥에서 왕위에 올랐을 수도 있고, 왕국 내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 아래서 살고 다니는 자들이 모두 왕의 후계자인 청년을 따르는 것을 보았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으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후계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바람을 쫓는 헤벨이겠쥬? 루아흐. 즉, 인기는 궁극적으로 일시적이었고, 한 사람이 상황에 맞게 일어나서 순위에 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Hevel이라고 Kohelet은 관찰합니다.

그러므로 보물과 부를 쌓고, 지혜를 쌓고, 심지어 권력을 쌓아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안정도 얻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무덤 너머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5장에서 코헬렛은 신성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지키라.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가까이 하여 들으라 그들은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는 자들이라 즉, 현명한 사람은 신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전 강의에서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지혜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방향,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코헬렛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경외심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든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당신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의 신학에서 그 둘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성찰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 제안하는 것처럼 말을 적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오듯이, 말이 많으면 바보의 말이 나온다. 그리고 잠언서와 매우 일치하는 전도서, 즉 코헬렛은 특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어를 서두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지체하지 말고 갚으라. 즉, 하나님을 대할 때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할 때 경솔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서약을 이행하십시오. 서원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다시 말하지만, -보다 진솔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는, 곧 우리의 말에는 큰 해악을 끼치고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사자에게 항의하지 마십시오. 나의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인하여 진노하사 너희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요? 많은 꿈과 많은 말은 헛된 것 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잠언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말을 성급하게 하고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종종 어리석은 일로 이어집니다. Kohelet은 단어가 hevel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헛되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떤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본다면, 4장에서 우리는 불의에 대한 코헬렛의 생각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적 계획에서 코헬렛도 억압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정의와 권리가 거부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지 마십시오. 즉 부패는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한 관리는 더 높은 사람의 눈을 받고 있고, 그들 위에는 두 사람 모두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의 증가는 모두가 가져갑니다. 왕 자신도 밭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여기 9절의 히브리어는 다소 모호합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실제로 왕이 균형을 맞추는 분이라고 읽습니다. 즉, 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 왕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NIV와 같은 다른 번역판에서는 왕 자신도 그러한 부패 문화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인은 당신이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왕으로서 코헬렛이 자신을 묘사하는 것처럼 왕의 활동을 무시하는 것은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세계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부패 문화는 8절과 9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헬렛은 필멸의 인간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사고 방식의 어리석음을 인식합니다. 이것 역시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무덤 너머에는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늘어나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고 좀 더 부유해 지거나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면서 우리 대부분이 경험했던 다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부의 증가는 청구서의 증가, 지출의 증가도 동반하므로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이는 인류가 결코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만족.

그리고 그것이 소유자에게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전 강의에서 나는 한때 알고 있던 한 신사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말년에 짧은 시간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명세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은행 돈을 무덤 너머 어디든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부하여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또, 가진 것이 거의 없는 노동자는 밤에 평화롭게 편히 쉴 수 있는 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위해 애쓰는 부자는 거기 모두 불안한 거품 속에 갇혀 잠에서도 쉴 수 없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입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악이요 또 소극적인 심판을 보았나니 곧 재물이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도록 축적되었느니라. 따라서 부를 헛되이 축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 즉 부가 소유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축적되거나 불행으로 인해 부를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마도 자신의 일부가 아니거나 자신의 책임이나 행동으로 인해 물건을 잃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때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코헬렛은 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는 그것을 큰 불행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들을 낳을 때 그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코헬렛은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갖고 죽어서 그것을 자기 뒤를 잇는 사람에게 남겨두고 그것을 탕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불운으로 막대한 재산을 잃어 후손에게 상속 재산조차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점은 지옥의 세계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벌거벗은 채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다가 올 때 떠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에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와 보물은 hevel 입니다. 이것 역시 심각한 악이다. 사람은 오자마자 떠난다.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니 그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애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큰 좌절과 고난과 분노를 느끼며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합니다. 가난이나 어떤 지독한 고난으로 인해 비참하게 살았던 삶이 괴로운 일이듯이,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려도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과정에서 좌절과 고난, 분노밖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코헬렛은 그러면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현명한 남자나 현명한 여자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즐거움을 긍정한다. 그제서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로 만족을 찾는 것이 선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괴로움과 좌절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순한 은사들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몫이요, 그의 몫이요, 그의 몫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를 관찰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소유물을 주실 때, 부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고 코헬렛은 생각합니다. 그의 몫과 소외를 받아들이고 그의 수고를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 좀처럼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괴로움과 좌절로 가득 채우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ohelet은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나는 코헬렛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관찰하는 악이나 비통한 심판의 긴 목록에서 또 다른 악을 보았습니다. 나는 태양 아래서 또 다른 악을 보았으며 그것은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인윤, 이 무거운 짐.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셔서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것은 다소 흥미롭지 않습니까? 코헬렛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평생 동안 축적한 부와 보물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을 관찰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생에서 얻은 부와 것들을 누릴 수 없고, 낯선 사람은 그것을 대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악인 hevel 입니다. 다시 한 번, 코헬렛은 지혜의 실행을 통해서도, 합당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에게 할당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고 빼앗아갑니다.

욥기 서두에서 욥이 설명했던 방식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당신은 이것도 코헬렛이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 사람에게만 주셨을까요? 예를 들어, 지옥의 세계 에서 남자가 아내를 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그 아내를 빼앗게 하신 경우, 또는 부부가 아이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신 비극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어떤 종류의 사고로 인해 비극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헬렛이 이 세상에서 관찰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장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산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노라. 코헬렛은 삶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지혜의 구현에 관한 것이며, 여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면 코헬렛은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없이 와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어둠 속으로 그 이름이 가려진다. 비록 해를 본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어도 그 사람보다 더 안식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4장 2절과 3절에서 본 표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가 천년을 두 번이나 살더라도 그의 번영을 누리고 모두가 같은 장소로 가지 말고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모티브를 다시 강화하십시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은 결코 만족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 번, 사람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5장과 10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2장과 14절과 15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음이 불가피하므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처신할 줄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식욕의 방황보다 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인생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다고 해도 결국 우리 모두는 여전히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름이 지정되었습니다.

1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미 구부러진 것을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코헬렛의 생각과 일치하여, 그것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간이 신을 지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의미는 적어지고, 그것이 누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5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미련한 자는 말이 많은 자로 묘사됩니다.

인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Kohelet이 Yitron을 찾지 못했다면, 그는 궁극적으로 Tov가 무엇인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장, 5장, 6장에서 그의 다양한 묵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짧은 며칠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며 이 일시적인 필멸의 존재에서 삶의 덧없음을 지적합니다. 그가 죽은 뒤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즉, 코헬렛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인간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특히 인간 존재 너머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